

심은경 “‘나는 별로 재능이 없구나’ 대사에 확 꽂혔죠”

미야케 감독 신작 ‘여행의 나날’서 작가 ‘이’ 역… “관객이 투영하게끔 나 자신 덜어내”

영화 ‘여행과 나날’에서 심은경이 연기한 ‘이’는 각본가다.

영화는 극중극 형식을 택해 ‘이’가 글을 쓴 영화를 보여준다. 여름 배경의 해변 마을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는 감독과 함께 이 작품을 갖고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 관객들은 여러 찬사를 보내지만, 정작 ‘이’는 이런 감상 소감을 털어놓는다. “나는 별로 재능이 없구나….”

‘여행과 나날’의 주연 배우 심은경은 최근 ‘재능이 없는 거 같다’는 대사에 확 꽂혔다”며 “내 이야기라고 많이 공

김됐다”고 출연 계기를 말했다.

‘여행과 나날’은 슬립프에 빠진 각본가 ‘이’가 눈이 뒤인 작은 마을로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열린 제78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국제 경쟁 부문 대상인 황금 표범상을 받은 작품으로,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2018),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2022)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미야

케 쇼 감독이 연출했다.

‘여행과 나날’은 대사가 적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다. 카메라로 조용히 풍경과 인물을 응시하는 정적인 영화다. 이

도 여행지를 혼자 돌아다니거나 글을

쓰거나 한다. 심은경은 여백이 많은 만큼, 행동거지 하나하나 감독과 눈의 하며 세심히 연기했다고 밝혔다.

심은경은 “카메라 앵글 안에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며 “그동안 다른 작품에서는 캐릭터 개성이 뚜렷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덜 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슬립프에 빠져 있고 자기 재능을 의심하는 모두가 ‘이’에 투영할 수 있다”며 “그래서 덜어나는 연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저 자신이 각본가 ‘이’고, 관객분들도 ‘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영화 ‘여행의 나날’의 배우 심은경과 미야케 쇼 감독

〈엣나인필름 제공〉

추위를 느끼는 모습은 연기와 실제가 섞이지 않았나 싶네요. (웃음)

심은경과 미야케 쇼 감독과의 인연은 3년 전 부산국제영화제 ‘너의 눈을 들어다보면’의 관객과의 대화(GV) 행사로 만났다. 미야케 감독은 당시 멀을 부리지 않고 잘 보이려 애쓰지 않은 모습으로 심은경을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여행과 나날’의 각본을 쓰던 중 다시 떠올렸다. 그래서 원작에선 40대 중년 남성이었던 캐릭터가 한국에서 온 젊은 여자로 바뀌었다.

생생한 장소에서 느끼는 감정과 기분도 연기에 담겼다.

저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기분으로

연기에 임했어요. (촬영 장소가) 여관

이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영화 속에서

는 이유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의 초상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심은경은 “동시대 최고의 감독님이라 생각한다. 너무 존경하고 감독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게 된다”며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고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소년 같으면서도, 모두를 아우르는 힘이 있다”고 극찬했다.

심은경은 차기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드라마 두 편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 편은 일본 NHK 개국 100주년을 기념한 드라마 ‘화성의 여왕’으로 그는 화성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화성인을 연기한다.

다른 한 편은 ‘대한민국에서 건물주가 되는 법’이라는 tvN의 블랙 코미디 드라마다. 심은경은 이 작품에서 색다른 모습을 예고했다.

“블랙 코미디를 좋아해요. 제가 맡은 캐릭터는 기존에 제가 맡았던 역할과 상반된 캐릭터여서 저한테는 큰 도전이에요. 하루하루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연합뉴스

황금대의 오늘의 운세

음력 10월 20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표현과 관련한 운이 아주 좋으니 예술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협당하다면 자기주장도 잘 할 수 있다.

36년생 문제가 풀어지고 근심이나 염려에서 풀려나는 운이다. 48년생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았는데 논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 60년생 크게 진행되는 작은 허점을 발견하는 운이다. 운기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72년생 조만간에 물 풍 한 사람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긴다. 84년생 출렁탕물이 가리워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96년생 운은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상태라면 시간을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 98년생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 운. 행운의 수: 13 행운의 색: 자두색



소띠: 일이나 계획이 알려지는 일도 생기겠다. 홍보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겠다.

37년생 생각했던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말없이 계약하는 것이 좋다. 49년생 몇 문의 구전을 먹으려고 남의 이익을 보장해준다. 책임진다 하지 마라. 61년생 스스로 이해가 되고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았다면 결정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73년생 남들 앞에서 자기 가족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85년생 막히 부분이 트이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열리거나 전개되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마라. 97년생 하찮은 작은 일들이 쌓여서 면진 결과를 끌어온다.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빨간색



호랑이띠: 이사운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헛빛이 잘 들어오는 장소나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이사운이 더욱 좋다.

38년생 두드려면 열리고 찾으면 구하게 된다. 50년생 물질을 주고 보람이나 기쁨을 얻는 운.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비용이 들어갈 일이 있다. 62년생 짹짜이신 산발을 신고 걷는 운세다. 겸기도 힘들지만 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74년생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존경이라는 명예로 다가온다. 물질적인 이득은 후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6년생 제자리를 찾아야만 만남도, 사귐도, 대화도 통하게 된다. 98년생 한정된 나의 에너지를 그냥 허비하지 마라. 97년생 하찮은 작은 일들이 쌓여서 면진 결과를 끌어온다.

행운의 수: 9 행운의 색: 올란지색



토끼띠: 능력 있는 어른이나 상사, 권위자와 동행하는 일이다.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치세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39년생 내집과 자기 희생이 결실을 거두는 운이다. 51년생 사익보다 공적인 이익을 앞세우면 주변 사람의 인정과 도움을 받게 되겠다.

63년생 다른 사람에게 자본을 투자하고 한다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75년생 사업을 하는 경우 중간 관리자나 첨모를 기용할 타이밍이다. 찾아오는 사람이나 운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85년생 막히 부분이 트이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열리거나 전개되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마라. 97년생 하찮은 작은 일들이 쌓여서 면진 결과를 끌어온다.

행운의 수: 1.8 행운의 색: 은색



용띠: 신분이 상승하는 운이나 승진도 그 상황에 맞추는 것이 좋다.

40년생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권위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52년생 정신적인 측면에서 길한 운. 애정운도 좋으며 가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다. 64년생 갑자기 나타난 일에 귀 기울이지 마라. 잠시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76년생 분주하거나 바쁜 장소보다 한적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이로움이 있다. 88년생 언제나 유혹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다가온다. 확실한 확인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응하거나 사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수: 0.1 행운의 색: 감색



뱀띠: 청자품, 예술품 등과 지적 소유권이 있는 것과 관련한 투자나 이익이 발생하는 운세다.

41년생 명예를 주구하는 사람은 실리를 쟁기려고 하지 말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감투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3년생 하나님을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을 모두 쓰는 대로 천천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65년생 집이나 사무실을 줄여서 이사 가는 운이다. 차라리 그곳이 운기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77년생 행상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엄밀히 말해서 물리적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물리적 시간을 더 빨리 쓰는 것이다. 89년생 천 리 길의 첫걸음에 해당되는 운세다.

행운의 수: 5.7 행운의 색: 살구색



말띠: 목이나 하리가 불편하다. 자세를 편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치는 것이 좋겠다.

42년생 고백할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54년생 가업을 물려주거나 기술을 인계해 줄 때면 길한 운세다. 66년생 어유롭게 놀라 낫다는 인상을 주변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78년생 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공한 사람을 수행하는 일이나 근거리에서 관찰하며 배울 수 있는 일이 생긴다. 90년생 진흙길을 걷다가 미룬 길을 만났으니 필요할 때가 있다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다.

행운의 수: 4.6 행운의 색: 다툽색



양띠: 주고받는 것에 대해 당당해야 하는 것이 이 운세의 포인트다.

43년생 오진이 많은 질환이라면 다시 진단받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55년생 믿음도 없으면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면 엇나간다.

67년생 스스로 대인군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명예를 원하는 경우라면 대길한 운세다. 79년생 이기거나 지는 것, 얻거나 잃는 것에 너무 연연하는 마음은 자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91년생 길은 멀고 험하지만, 정도를 따라 걷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멋진다면 조만간 반전의 기회를 맞이한다. 03년생 준비한 것을 실행하라.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파란색



원숭이띠: 직원들이나 고객들이 시각적인 효과에 투자하는 것이 행운을 불러온다.

44년생 정신적인 교류에 최상의 운세. 종교, 철학, 미래에 대한 관심사를 표현하는데 길운이다. 56년생 일이나 사람에 의한 마음이 들거나

온다. 중심이 잡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불화가 나타난다. 68년생 중년 또는 재혼의 결합에도 좋은 운이다. 80년생 자기 할 일에 나태하거나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사람과는 함께 출발하지 마라. 92년생 구시일생 철진팔기 등 다시 한 번의 기회라는 점도 중요할 운세다. 04년생 조바심 신종합이 필요하다. 04년생 주변이 화려해지는 운세.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황금색



닭띠: 매매 운은 복장이 화려한 사람에게 팔린다. 센스나 감각적인 면을 추구세우면 도움이 되겠다.

45년생 무조건적인 도움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 57년생 대인관계에 친분을 쌓기 좋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질투에 의한 다툼이나

생길 수 있으니 세심한 관찰도 필요하다. 69년생 상속받은 부동산은 당분간은 팔지 않는 게 유리하며 더욱 이익이 된다. 81년생 행운당한 일은 당다면 액땜한 것 같다. 빨리 태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93년생 부드러운 대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사구는 방법이다. 05년생 생녀 무너 놓이 날마다 위험을 자초할 수 있으니 적당함이 필요하다.

행운의 수: 3.6 행운의 색: 빨간색



개띠: 집 안내부를 대청소하거나 수리, 보수하는 것이 좋은 운을 확대시킬 수 있다.

46년생 운이 좋으니 마음도 편안하다. 문제를 생길 일도 부드럽게 치러지는 운이다. 58년생 정성이 하늘에 통한다. 평소 제사를 정성으로 지내는 경우라면 조상 운이 내리는 운세다. 70년생 남을 배려하는 사람에게 익혀로 돌아온 천군 만마를 얻을 수 있다. 82년생 발전을 위한 고민이나 결과적으로도 길함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나쁜 것은 포기다. 94년생 활동적이기만 하면 열을 것이 있는 운. 06년생 자신을 위축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첫 번째 순위를 흥락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흰색



돼지띠: 나이 어린 커플보다는 나이가 있는 중년의 인연이 더욱 좋을 운세다.

35년생 마음에 들지 않아도 흥제가 생기는 운이다. 47년생 어려워도 마음의 어유를 가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바람직하다. 59년생 시

간이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실감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가정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예의 범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운세다. 83년생 가장 중요한 진실한 사랑은 지나고 있으니 시기이자니면 진심이 통하게 된다. 95년생 가장 중요한 진실한 사랑은 지나고 있으니 시기이자니면 진심이 통하게 된다.

행운의 수: 1.4 행운의 색: 노란색

KCTV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 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들,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출발 VJ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